

문화광장



양 건
(사)제주미래 건축공간연구원 이사장

한창 그림을 좋아하던 청소년 시절을 돌아보면, 형상의 표현 없이 캔버스 전체를 하나의 색으로 칠한 단색화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기억이 있다. 화면에 몰입해서 붓질하는 화가의 행위에 예술적 가치를 둔다 해도, 그 산물인 그림에서는 어떤 감흥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인이 된 후 어느 단색화가의 전시장에서 ‘표면의 깊이’라는 문구를 발견하고는 그동안의 무지함을 반성했었다. 물리적으로 1mm도 안 되는 두께에 누적돼 있는 작가의 심상을 무한한 깊이로

‘표면의 깊이’가 사라진 도시에서 변모를 기대하며...

교감하는 것이 단색화의 감상법임을 깨우친 것이다. 단색화의 매력인 표면의 깊이를 캔버스 밖의 현상으로 확장한다면, 건축과 도시의 경관을 이루는 주요 요소로서 논할 수 있다. 도시민은 다층적 외피와 시간이 누적된 재료로 구성된 건축 표면의 깊이에서 혹은 그러한 건축으로 형성된 거리를 산책하는 도시 체험에서 삶의 여유와 자기 존재의 서사를 얻게 된다.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도시에서의 삶을 원한다. 그런데 도시 표면을 이루는 깊이의 측면에서 제주의 도시 모습을 진단해 보면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다. 근대와 현대 건축으로 진화하는 지난 세기 동안, 건축은 표면의 의미를 상실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금속 커튼월의 발명은 건축기술과 재료의 관점에서는 혁신

적이었으나, 전 세계의 도시가 급속히 유리 덩어리로 채워지며 경관의 정체성 상실을 초래했다. 건축의 표면에서 내·외부 환경을 구분 짓는 피막의 기능과 효율만을 남기고 깊이는 삭제된다. 제주의 도시 경관도 고층의 유리 빌딩들이 현대 도시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이덴티티를 자아낼 표면의 깊이가 없는 도시는 결국 시민의 삶과 유리될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경제적 가치에 기반한 공간 소유의 욕망 또한 건축 표면의 물리적 깊이를 소거하는 주요 요인이다. 우리들의 삶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공동 주거 건축에서 발코니가 사라진 것도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마치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얇은 피막의 아파트 공화국이 표면의 깊이가 사라진, 현재 우리들의 안타까운 도시 풍경이다.

그런데 지금 제주는 피막의 도시에서 표면의 깊이가 있는 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다. 첫째, 기후 에너지 산업의 최전선에서 건축의 전환은 표면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 예견된다. 둘째, 2027년에 시행 예고된 고도 지구의 전면 해제는 주거 형식에서 발코니를 일정 비율로 의무화하고, 주차장에 빼앗긴 1층 필로티를 보행 친화형 프로그램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호재라 할 수 있다. 정책과 법 제도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다음은 ZEB (Zero Energy Building)을 위한 다층의 외피와 재료의 쓰임, 고도 지구 해제에 따른 공간의 다양성 등을 활용할 건축가들의 몫이다. 새로운 도정의 해안에 의해 제주가 ‘표면의 깊이’가 있는 도시로 변모하기를 기대한다.

사설

유류예산 소진으로 제주해역 경비 비상

유류예산 조기 소진으로 제주해역 수호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해역의 해양경비를 전담하는 해양경찰청의 합정 유류예산이 이달로 사실상 소진돼 운항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비합정 유류예산은 1075억원으로 전년보다 153억원 감소했다. 올해 예산 편성 시 유류비 편성단가는 ㄹ당 1376원이지만 실제 평균 공급단가는 1890원이다. 9월에는 1990월까지 상승하면서 현재 남은 유류예산은 127억원이다. 9월 사용분을 지급하면 기존 예산이 모두 소진된다. 항공유 가격도 최근 ㄹ당 1800원대로 급등하면서 항공유 예산도 10월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은 경비합정 유류절감 매뉴얼에 따라 경제속력 운항과 기동훈련 축소에 나

섰다. 이로 인해 중국어선 추적과 관공선 장기 체류 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 제주해역에는 하루 평균 44척의 중국어선이 출현하고 있다. 또 야간과 기상악화를 틈탄 불법조업에 이어 정선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대림 의원은 이어도와 잠정조치구역에는 중국 해경선과 관공선의 활동이 이어지는 만큼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강력한 해상 치안이 요구된다. 합정과 항공유 예산이 바닥나면 중국어선 단속과 수색·구조 활동 등 필수 임무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해경은 부족한 유류예산을 정부 예비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야 한다. 제주해양정 유류절감 매뉴얼에 따라 경제속력 운항과 기동훈련 축소에 나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분양과 우려스러운 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다음 주부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용지 분양에 들어간다. JDC가 2028년 준공 목표로 제주도 월평동 일대에 약 86만㎡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중 1차 분양면적은 7만5000여㎡로 13개 필지, 약 577억원 규모이다. 입주 가능 업종은 IT·BT 등 첨단산업으로 JDC는 AI와 첨단 모빌리티, 청정 에너지, 제주 천연자원을 활용한 화장품·식품 기업 등을 유치, 첨단 제조·정보기술(IT) 산업을 키워 제주도 내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JDC는 이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를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다. 지난해 말 기준 입주기업은 193개사, 매출액 합계는 8조 2000억원, 고용 인원은 3700명이다. 입주기업 매출액 합계는 제주 지역 내 총생산(GRDP)의 32%

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JDC는 밝히고 있다. 카카오와 이스트소프트, 제주반도체, 한국비엠아이, 페리치에어로스페이스 등 IT·BT·항공우주 기업이 들어와 있다. 문제는 1단지 대표기업들이 제주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1단지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카카오는 건물과 본사 소재지만 남아 있고 제주반도체는 도내에서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다. 수치상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지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JDC는 제주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2단지에 공공 AI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AI데이터센터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치밀한 운영계획과 입주기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카카오퍼럼 다시 실험으로 끝나는 지역 내 총생산(GRDP)의 32%

열린마당

서두르지 않는 운전이 가장 큰 배려입니다



김 태 인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추석이 다가오면 제주 곳곳의 도로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고향을 찾는 도민들의 이동이 늘고 관광객과 렌터카 이용 차량까지 더해지면서 주요 관광지와 도심, 공항 주변은 물론 읍·면 지역 도로에서도 교통량이 크게 증가한다. 교통경찰로 현장에서 차량의 흐름을 관리하다 보면 명절 연휴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특히 제주는 관광지와 해안도로, 농어촌 지역의 좁은 도로가 혼재돼 운전자에게 익

숙하지 않은 도로 환경이 많다. 제주에서 운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낯선 길에서는 조금 천천히 운전하고,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서는 한 번 더 주변을 살펴야 한다.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졸음도 경계해야 한다. 비교적 한적한 구간에서는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졸음이 찾아오면 반드시 안전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번 추석에는 조금 일찍 출발하고 조금 천천히 운전하길 바란다. 길이 막힌다고 조금해하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이 될 것이다.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사히 도착하는 것’이다.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출발해 웃으며 돌아올 수 있도록 교통안전에 함께해 주길 당부드린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도민은 안전한 일상, 관광객은 안심 여행”

안전문화 확산 결의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조천읍 함덕 서우봉 오름 입구에서 위성곤 지사, 김승준 제주도의회 부의장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안심제주 실천 및 안전문화 확산 결의대회’를 개최. 참가자들은 서우봉 산책로와 돌레길 1.5km 구간을 걸으며 안전시설물 합동점검을 진행했으며 점검 결과는 관계부서에 전달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개선하고, 시설 보강이나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후속 계획에 반영해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위성곤 지사는 “안전은 구호만으로 지켜지지 않으며, 현장을 살펴 위험을 먼저 찾고 발견한 문제를 바로 고치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라고 강조. 오소범기자

‘투기 Zero, 꽃길 100’ 눈길

○...서귀포시 남원읍이 양묘장에서 직접 육묘한 계절화를 식재,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탈바꿈시키는 ‘투기 Zero, 꽃길 100’ 클린 꽃밭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눈길. ‘투기 Zero’는 불법투기를 줄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꽃길 100’은 지역 내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단계적으로 꽃밭과 꽃길로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의미를 함축. 고관우 읍장은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에 꽃을 심으면 주민들이 느끼는 공간의 가치도 달라질 수 있다”며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투기 장소를 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언급. 백금탁기자

묘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생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 주 토 박 이

제주산담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평인
2009 백도라지 평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사)한국예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 장 의 사

616-08-85402